

다이센 · 히루젠의 지형

히루젠 고원을 둘러싸는 산들은 돗토리현의 다이센(1,729m)에서 남동쪽으로 길어지는 성층 화산 산줄기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100 만 년~50 만 년 전 반복해서 분화가 일어나면서 조야마(1,085m), 기보시아마(1,110m), 후타마타센(1,083m), 미나가센(1,159m)의 히루젠의 봉우리들, 그리고 ‘히루젠산자(히루젠의 세 봉우리)’ 라고 불리는 가미히루젠산(1,202m), 나카히루젠산(1,123m), 시모히루젠산(1,100m) 3 개의 봉우리가 형성되었습니다.

히루젠 봉우리 대부분은 천천히 움직이고 점착성이 강한 용암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다이센과 마찬가지로 히루젠의 산들은 주로 용암이 굳어져 생긴 화산암으로, 침식되기 쉬운 데이사이트와 안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루젠산자 봉우리의 능선은 오카야마현과 돗토리현 사이의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남쪽의 해발 약 600m 부근에서는 급경사로 된 경사면이 평평해지면서 히루젠 고원으로 알려진 넓고 완만한 경사의 들판이 펼쳐집니다. 이곳에는 광활한 초원이 펼쳐지며, 20 세기 중반까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축의 사료, 논밭의 비료, 주거지의 지붕을 이는 재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여러 고유종과 멸종위기종에 중요한 서식 환경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매년 봄에는 예로부터 이어진 전통인 자라난 식물을 제거하는 산불 놓기가 시행됩니다. 산불 놓기는 이 지역에 나는 들풀의 발아를 촉진하고 이 토지가 원래 삼림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경사진 고원의 남쪽에는 히루젠 분지로 알려진 넓은 층적 평야가 있습니다. 약 35 만 년 전, 화산재와 퇴적물이 강길에 흘러 들어와 막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논밭과 작물이 물에 잠기면서 거대한 호수가 출현했습니다. 당시 이 수역에는 규조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단세포성 조류(藻類)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조류의 골격은 실리카(규소의 일종)로 만들어졌습니다. 죽은 규조는 호수 바닥에 흘러가서 풍부한 실리카를 포함하는 퇴적물의 층을 형성했습니다. 장소에 따라 층의 두께는 약 100m에 달합니다. 규조토 또는 규조암이라고 불리는 이 퇴적물은 가볍고 연마성이 있으며 다공질이기에, 맥주 여과부터 다이너마이트 조제까지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히루젠은 일본의 중요한 실리카 채굴지 중 하나입니다.

다이센의 계속되는 화산 활동에 의해 최종적으로 히루젠 분지 호수 서쪽은 분화 퇴적물로 막혔습니다. 동시에 호수의 동쪽 연안은 아사히카와 수계에 의한 침식이 시작되어 호수가 남쪽으로 흘러 나갔습니다. 호수가 완전히 마르자 낮은 평지가 새롭게 출현했고, 거주에 가장 적합한 토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마니와시가 있습니다.